

# 일승법계도 저자 “의상스님 이다” “지엄스님 이다”

대승불교의 백미(화엄경)의 가르침을 법성계(法性偈) 210자로 압축시킨 <일승법계도합시일인>(이하 법계도). 지금껏 의상(625~702)스님의 저술로 여겨왔던 학계에 저자가 지엄(智嚴·602~668)이라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엄 저자설”은 “한국불교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20일 개최된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존 요르겐센교수(그리피스대학·호주)가 제기한 것. 그는 “중국 방산(房山)의 운거사(雲居寺)에서 1118년~1196년 사이에 새겨진 <방산석경·房山石經>에는 중국의 지엄스님이 법계도 저자로 기록되어 있다”며 “의상스님이 저자라면 법계도가 완성된 668년보다 500년 후에 제작된 석경에서 당연히 지엄 뿐만 아니라 의상스님도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계도는 중국의 지엄스님이 작

성했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으로 각기 전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3월 중국의 요장수(姚長壽) 교수가 <중국석경 연구>에 ‘방산석경’의 화엄전적에 대하여’를 발표해 ‘법사조(法師造)’로 명기된 <일승법계도합

다는 점을 들어 ‘지엄 저자설’을 일축하고 있다.

중법스님(중암승가대 불교학)은 “의상스님이 지엄에게서 7년간 지도를 받으며 완성한 법계도는 스님의 ‘일종의 졸업논문’이라며 ‘법계도에서 지엄의 영향을 찾을 수는

## 요르겐센교수 ‘방산석경’ 근거 ‘지엄說’ 주장 국내불교학계 “의상 著 확실… 논란여지 없다”

시일인(一乘法界圖合詩一印)을 소개하고 의상스님이 법계도를 만들었다는 종래 학설의 수정 제안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학계는 일연·최치원·균여·의천·김시습 등의 저술에는 의상스님이 법계도를 지은 것으로 분명히 기록돼 있

았겠지만, 이것은 저술에 참여했다기보다 ‘논문지도’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 역시 “신라시대의 어느 주석서에서도 철연필구법성계의 저자가 지엄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며 “<석경>보다 앞서 기록된 <원상록·元常錄> 등에서 지엄과 의상이 동일하게 등장한 것으로 보아 석경의 사료적 가치가 의심스럽다”고 요르겐센교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계도 저지’와 관련해 이미 10세기 중반에 지엄이 법성계를 짓고 의상이 도인(圖印)을 그렸다는 설과 의상의 작품이라는 설이 공존해 있었다. 그때 균여스님(均如·923~973)이 법성계와 도인 모두 의상의 찬술로 단정했고, 이후 불교학계는 ‘의상 저자설’을 정설로 삼아왔다.

한편 김상현교수(동국대 인문학부)는 “<원상록>과 <의상전>에 기록된 법계도 관련 설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의상스님 진영.

화에서 의상과 지엄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법계도가 의상과 지엄의 합작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의상이나 지엄이나, 법계도의 저자가 의상스님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불교학계는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법계도 관련 기록이 최초로 수록된 <원상록>의 저자 ‘원상(元常)’의 국적을 밝히고 12세기 이전에 새겨진 <방산석경>의 법계도가 당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고려에서 전해진 것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종욱 기자

Location: http://www.buddhist.or.kr/budsi/

What's New | What's Cool | Handbook | Hot Search | Hot Directory | Updates

**BUDSIR**  
Buddhist Scripture Information Retrieval

THE DIGITAL PALI TIPITAKA AND ATHAKATHA

Including the data search program

**BUDSIR**  
A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to aid the study of the Pali Canon by The Royal Decree of His Majesty King Bhumibol Adulyadej The Great

### 팔리경전 전자화 과정 “불기회”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마하돌대학 컴퓨터 센터

마하돌대학 컴퓨터센터는 세계 최초로 남전대장경의 전자화를 성공해 주목받고 있는 태국의 대표적인 불전 연구소.

이 사이트에서는 팔리경전의 전자화 과정과 전자본 경전, CD롬 경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컴퓨터센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경전 전자화 작업은 최근 개발을 끝낸 CD롬 ‘불교경전 정보검색’(Buddhist Scriptures Information Retrieval). 여기에는 남전대장경 45권, 주석서 55권 기타 경전 15권 등 115권 팔리어 불교문헌이 입력되어 있다. 또 태국어와 팔리어-영어음역어로 기록된 이 CD롬은 멀티미디어 기능까지 제공한다. 이 기능은 모니터에 나타난 경전 내용중 일부분을 선택하면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원음을 들을 수 있게하는 서비스.

불자 네티즌이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30여개의 경전 문구를 사용해 멀티미디어 기능 등 CD롬 경전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팔리어 색인 검색기능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전자사경기능도 만끽할 수 있다. <http://www.mahidol.ac.th/budsir/>

## “불교와 유교 사회병폐 치유책”

정병조교수 한불연 주최 국제불교학술회의서 주장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서 정신적 지표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 동양의 전통사유인 불교와 유교가 현대인에게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이 6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불교와 유교’를 주제로 개최하는 제16회 국제불교학술회의에서 정병조 교수가 이같은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다.



‘보살’ ‘군자’ 많아야 사회갈등 최소화

실천해야 하기에 출가자의 수행과 재가자의 ‘깨달음의 사회화’의 병행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출가와 재가는 상호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정립 즉 ‘수행’과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조교수는 “불교와 유교는 현사회의 고뇌와 병폐를 전통 사유에서 고뇌하고 현대적 언어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불교의 보살과 유교의 군자가 현대 산업사회 속에 있어야 하는 존재 담위를 찾는 작업”이라고 결론지었다.

최근덕교수(성균관대)는 ‘유교와 불교에 있어서 이상적 인격’에서 “유교는 인간의 세계관을 현재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불교는 삼세십계(三世十界)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인격에 있어서 유교는 도덕적 인간을 강조한 반면 불교는 원만(圓滿) 자재(自在)한 인간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루우열교수(북경대·중국)가 ‘중국에서의 불교와 유교’, 존 요르겐센교수(그리피스대·호주)가 ‘조선조 불교와 유교의 대립관계’ 등을 발표한다.

## “美 언론 동양종교 심층 보도”

슈멜즈바우어 박사 최근 경향분석 논문 발표

불교 등 동양 종교가 미국 사회의 중심부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타임즈> 등 주요 시사지 종교전문기자들의 취재 태도와 종교 소양이 높아졌기 때문.

‘미국종교문화 연구센터’의 슈멜즈바우어 박사는 <종교학>지에 기고한 논문 ‘美 언론을 휘젓는 종교’에서 美 시사지들의 종교관련 보도를 분석하고 이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슈멜즈바우어는 “종교전문기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변화는 뉴스룸 자료에 의존해 기사를 쓰기보다 공인 등 공공장소에서 종교활동가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심층 취재 경험은 종교전문 기자들에게 미국 종교계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종교전문기자들이 대학의 종교학과를 찾는 것도 부족 늘어난 현상”이라며 “발행빈도대학 종교연구소가 종교전문기자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종교전문기자의 종교성향이 기독교·이슬람·불교·유대교 등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美 시사지가 동양종교를 심층·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학술단신

#### 불광대사전 한글색인본

대만의 대표적 불교사전 <불광대사전>(전7권)의 한글 색인본이 발간된다.

용학스님(은혜사 승가대학원)은 2개월간의 작업 끝에 2만5천자에 달하는 한글 표제어를 최근 정리하고 4백여쪽 분량의 <불광대사전 색인본>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 색인본이 한자 총 획순으로 단

어를 찾았던 반면 한글 색인본은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순차적으로 검색해 낱말을 찾게끔 검색이 훨씬 손쉬워진다. 또 해당 용어가 수록되어 있는 <불광대사전>의 권 수와 쪽 수를 게재해 놓고 있어 단시간에 원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한다.

승가대학원은 그동안 <금강경전서> 불교학관련자료 CD롬, <화엄화개론> 등을 발간하는 등 활발히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김영태교수 퇴임강연회

동국대 불교학과 김영태교수가 5일

## 에이즈환자 돕는 ‘캄’ 팔홍스님

캄보디아 팔 홍(Pal Hon) 스님이 에이즈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1.2%(약 12만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 최고의 에이즈 국가.

이곳의 가난한 에이즈 환자들은 병고(病苦) 뿐 아니라 약을 구입할 때마다 2만원(미화 20불)을 지불해야 하는 생활고(苦)도 겪고 있다. 이 금액은 캄보디아 국가공무원의 한 달 봉급.

팔 홍스님이 이들에게 배운 자비는 단지 나무껍질과 뿌리로 만든 차와 따뜻한 격려 뿐. 그러나 가난한 에이즈 환자들이 팔 홍스님을 찾아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캄보디아 보건국 ‘에이즈 프로그램’ 담당자인 타이 팔라씨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에이즈 환자를 도울 수 없다”며 “팔 홍스님과 같은 종교인들의 참여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더없는 위트가 된다”고 말했다.

3시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정년퇴임 기념 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강연회에서 김교수는 ‘고구려 연가-연수연호에 대하여-인현의불상의 연대를 밝힘’ ‘당 구화산의 신라 지장선사-왕자설과 이불 김교각 문제’ ‘대각국사의 고려교장-속경경’이 아니다’ 등 지금까지 학계에서 다룬 바 없는 세 가지 주제-연구를 발표한다.

#### 동대 석림회 ‘석림’ 발간

동국대 석림회(회장 정도)가 <석림> 제3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불교적 관점에서 본

유전공학’(윤용택) ‘지구환경의 현실과 과제’(박광서) ‘현대인의 정신적·육체적인 병’(김성규) 등을 소개해 현대사회의 제문제와 불교사상을 기획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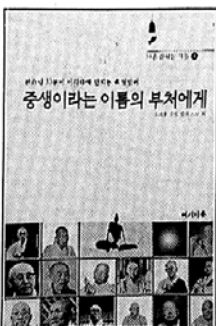
이외에도 ‘젊은 비구스님들과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말씀’(틱남한) ‘찬불가의 현황 및 진로’(정부기) ‘불교소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장영우) ‘지놈의 선사상 연구’(명정) ‘초기불교의 선정수행에 관한 일고’(김강) ‘금산사의 미륵신앙’(각진) 등 교수·학인들의 논문 10여편이 게재됐다.

#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여시아문 은 ‘돌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단’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 마음 밝히는 책들 ①



###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중정 율하 스님을 비롯한 33분 / 르스님 / 범어 / 모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르스님. 그런 스승들이 제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르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현대불교신문 위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 마음 밝히는 책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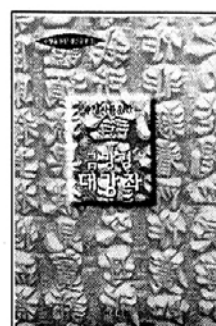
### 삶은 꿈가 아니다

대행 / 스님 / 범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람이 빛어낸 깨달음의 노래

혜원 위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 수행자를 위한 경전 공부 ①



### 금강경 대강좌

적연 이재열 법사가 풀이한 금강경 대강좌

선(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쳐 모든 불자들이 온전히 계정으로 만들지 못했던 금강경. 그 금강경이 이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금강 반야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선다.

이재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범어집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독특한 해석으로 명쾌한 수행방법론을 제시!